



PORSCHE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 출시행사

프레스킷

목차

개요: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효율성과 럭셔리함 모두를 겸비한 스포츠카, 파나메라	3
뒷좌석에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3
럭셔리 세단계의 스포츠카	4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지속 가능성과 퍼포먼스 – 변치 않는 포르쉐의 철학	5
50킬로미터 주행 가능한 전기모터	5
포르쉐918스파이더를 베이스로 한 신형 하이브리드 전략	5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듈과 빠른 변속의 8단 PDK	6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	6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의 궁극의 효율	7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	
라운지스타일의 리어와 기본 장착된 파노라믹 루프	8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위한 확장되고 차별화된 장치	8
하이엔드 태블릿을 갖춘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10
모든 파나메라를 위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11
강력해진 출력, 향상된 연비	
신형 3리터 V6 터보 엔진을 장착한 파나메라와 파나메라 4	12
19인치 휠과 LED 헤드라이트 등의 익스테리어 요소	12
연료 소비 및 배출	13

01/2017

개요: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효율성과 럭셔리함 모두를 겸비한 스포츠카, 파나메라

포르쉐는 지속적으로 신형 파나메라의 모델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포르쉐는 918 스파이더를 베이스로 제작한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출시와 더불어 15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와 최고급 옵션사양을 갖춘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출시해 최상위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330마력/243kW),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462마력/340kW),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440마력/324kW)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550마력/404kW)의 4가지로 출시된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는 성능 지향적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와 다이내믹한 화려함과 럭셔리한 승차감을 갖춘 지속 가능한 e-모빌리티가 결합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를 통해 엔진과 전기모터의 균형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했다. 신형 2.9-리터 V6 바이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만들어내는 462마력(340 kW)의 시스템 파워는 911 터보 수준의 힘을 보여준다. 약 71.4kg.m의 토크는 출발하는 즉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6초만에 100 km/h에 이를 수 있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모드 상태로 50 km까지 주행 가능하며, NEDC 기준 2.5 l/100 km의 연비를 보여준다.

뒷좌석에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신형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더 길어진 휠베이스,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와 편안함이 결합된 파나메라의 럭셔리 버전이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를 통해 포르쉐는 더 넓은 뒷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150mm 확장된 차체 길이 덕분에 뒷좌석은 더욱 넓어졌다. 공간이 확장된 만큼 레그룸도 넉넉해져 더욱 여유로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Adaptive Air Suspension), 파노라믹 루프 시스템(Panoramic Roof System), 콤포트 헤드레스트가 장착된 전동 조절식 콤포트 시트, 앞좌석과 뒷좌석 열선 시트와 전동식 롤업 선블라인드(Roll-up Sunblinds)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와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에는 더욱 다양한 사양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럭셔리 세단계의 스포츠카

지난 2016년 여름,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2세대 파나메라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처음 공개된 4륜구동의 파나메라 모델은 파나메라 4S (440마력/324 kW), 파나메라 4S 디젤 (422마력/310 kW)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550마력/404 kW)다. 그 후에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모델, 그리고 6기통 터보 엔진(330마력/243kW)을 장착한 기본형 모델인 파나메라와 파나메라4가 이어 출시되었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모델과 이그제큐티브 모델 추가를 통해 330마력부터 550 마력까지, 총 10 가지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지속 가능성과 퍼포먼스 - 변치 않는 포르쉐의 철학**

포르쉐에서 "하이브리드"란 지속 가능한 운행 능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동시에 의미하며, 이는 2015, 2016년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919하이브리드가 승리하면서 사실로 입증됐다. 이러한 철학은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는 462마력(362kW)의 힘과 NDEC 기준에서 2.5 l/100 km의 연비를 보여주며 CO₂ 배출량은 56 g/km이다.

50킬로미터 주행 가능한 전기모터

신형 포르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출발 시 항상 전기 모드로만 작동하고 최대 50km까지 무공해로 구동되며 최대 140 km/h에 도달한다. 하지만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역시 럭셔리 세단 스포츠카로써 최고 속도는 278 km/h에 달하며 시스템 토크는 71.4 kg.m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4도어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로서 불과 4.6초만에 100 km/h의 장벽을 깬다. 또한 표준형 3챔버 에어 서스펜션으로 안락함과 다이내믹함 간에 최적의 균형을 보장한다.

포르쉐918스파이더를 베이스로 한 신형 하이브리드 전략

신형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데 바로 918스파이더를 베이스로 한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887마력(652 kW)의 918스파이더는 동 시리즈 가운데 누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를 가장 빠르게 주파한 차량이다. 6분 57초의 랩 타임 기록은 두 개의 전기모터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파워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918스파이더와 마찬가지로, 파나메라 전기모터의 파워 136마력(100 kW) 과 40.8 kg.m 토크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작동한다. 이전 모델에서는 최소 80% 정도의 페달을 밟아야 전기 드라이브의 추가적 파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페달을 밟는 즉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 작용한다. 918스파이더와 마찬가지로,

이번 모델에 탑재된 전기모터는 항상 별도의 파워를 제공하는데 이는 신형 2.9리터 V6 바이터보 엔진(243 kW/330 마력/45.9 Kg.m)의 퍼포먼스 특징과 함께 전기모터와 터보차저를 기반으로 인상적인 부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낸다.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에서, 전기에너지는 최고 속도를 끌어 올리는 데에도 활용된다. 포르쉐에서 더욱 강력하면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키는 동시에 높은 연비를 가진 이번 신형 "E-퍼포먼스"를 통해 미래 자동차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듈과 빠른 변속의 8단 PDK

V6 가솔린 엔진 디커플러(decoupler)와 함께, 전기모터는 새로운 시대의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듈을 예고하고 있다. 전자 유압식의 이전 모델과는 달리, 전자 클러치 액츄에이터(ECA)에 의해 전기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신형 파나메라의 엔진 디커플러는 반응시간을 단축시켜준다. 다른 2세대 파나메라 모델에서처럼,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변속이 가능한 8단 PDK 변속기가 적용되어 바퀴 전체에 파워를 전달해준다. 이 트랜스미션은 이전 모델의 8단 자동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을 대체한다. 전기모터는 액냉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파워를 공급받는다. 또한 배터리의 에너지 전력량(트렁크 바닥 아래 통합)이 9.4에서 14.1 kWh로 늘어났음에도 전체 무게에는 변함이 없다.

고압배터리는 230-V, 10-A 에서 완전 충전 시 5.8시간만에 충전 가능하며, 파나메라 표준형 3.6-kW 충전기 대신 옵션인 7.2 kW 탑재 충전기와 230-V, 32-A 커넥션을 선택할 경우, 배터리 완충 시간은 3.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충전 과정은 PCM 또는 포르쉐 카 커넥트 앱(스마트폰과 애플워치용)의 타이머를 통해서도 시작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에는 보조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충전 중에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

2세대 파나메라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롭게 설계된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의 컨트롤 컨셉과 디스플레이로, 이는 터치 감응형 패널과 개별 설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아날로그 계기판 양쪽에 있는 2개의 7인치 스크린은 인터랙티브 콕핏을 만들어내며 해당 모델 라인의 다른 버전과는 반대로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는 파워 미터가 하이브리드 작동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다.

직관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는 포르쉐918스파이더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다. 파워 미터는 현재 소모되고 있는 전기에너지는 물론이고 회수되는 전기에너지 용량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12.3인치 터치스크린은 중앙 PCM컨트롤과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다. 드라이버는 이 둘을 통해 혹은 계기판에서 하이브리드 정보의 다양한 항목에 접근할 수 있다. 부스트 어시스턴트와 하이브리드 어시스턴트는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스트 어시스턴트 디스플레이는 부스팅에 필요한 에너지를 표시해주며 하이브리드 어시스턴트는 전기 주행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 신호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의 궁극의 효율

모드 스위치가 스티어링 휠에 통합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에 기본 장착된다. 모드 스위치와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는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를 활성화 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모드는 다른 파나메라 모델에 장착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서 볼 수 있는 “Sport” 그리고 “Sport Plus”를 포함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용 모드에는 “E-Power”, “Hybrid Auto”, “E-Hold”, 그리고 “E-Charge”가 있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는 항상 순수 전기모드인 “E-Power” 모드로 시동된다. 새롭게 개발된 “Hybrid Auto” 모드는 파나메라의 궁극의 효율을 위해 동력을 자동적으로 바꾸고 결합한다.

“E-Hold” 모드는 운전자에게 의식적으로, 목적지의 환경영역에서 제로배출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Charge” 모드는 V6 엔진을 실제 드라이빙에 필요한 파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작동시켜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가장 높은 레벨의 성능은 “Sport”와 “Sport Plus” 모드에서 가능하다. V6 바이터보 엔진은 두 모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Sport” 모드에서는, 충분한 e-boost 예비 에너지를 보장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을 항상 최저수준으로 유지한다. “Sport Plus” 모드는 차량의 최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파나메라의 최고속도를 278km/h에 도달하게 한다. 이 모드에서도 V6 바이터보 엔진을 통해 배터리를 최대한 빨리 충전하도록 한다.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

라운지스타일의 리어와 기본 장착된 파노라믹 루프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1세대 포르쉐 파나메라 때부터 만나볼 수 있었다.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는 이전 모델처럼 휠베이스가 150mm 증가해 총 3100 mm 길이의 휠베이스를 갖는다. 이는 인테리어 측면에서 110mm 길어진 레그룸과 40mm더 커진 등받이 각도 등 라운지 형태의 리어를 구성하면서 세단 전체 길이를 5049mm에서 5199mm까지 증가시켰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의 디자인은 기존 모델보다 더욱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모든 차체 디자인은 포르쉐의 외관 디자인을 총괄하는 피터 바가(Peter Varga)의 지휘 하에 개발되었고,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는 단순히 좀 더 길어진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기존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량으로 탄생되었다. 길어진 차체는 리어 도어와 루프 라인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늘어난 측면 윈도우 라인은 파나메라를 더욱 더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준다. 도어는 휠베이스와 같이 150mm 확장되어 승객은 뒷좌석에 좀 더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으며,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등받이 각도를 갖추고 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위한 확장되고 차별화된 장치

더 길어진 휠베이스와 더불어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파나메라 4S,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등 네 가지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은 확장되고 차별화된 기본 사양을 통해 다른 모델들과 차이를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작지만 우아한 장식들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론트 윙의 에어 아울렛 트림(air outlet trims)과 매칭된 도어 실(door sills) 내 고광택 실버 스트립 등이다. 전면부 에어 인테이크 위에는 고광택 실버 스트립이 있으며,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의 C-필러 부분에는 "이그제큐티브" 로고가 새겨져 있다.

모든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파노라믹 루프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길이 1780 mm, 폭 1200 mm로 포르쉐 차량 중 가장 크다. 루프의 전면부는 완전 개방이 가능하며, 투명 루프는 2개의 내부 블라인드로 덮을 수 있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를 포함하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adaptive air suspension)도 기본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멀티웨이 조절 기능을 갖춘 콤포트 시트, 콤포트 헤드레스트, 히팅 시트, 전동식 롤업 선블라인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옵션 사양인 마사지 기능은 4 개 시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각 백레스트 안에 장착된 10개의 에어 쿠션은 5종류의 마사지 프로그램과 강도 레벨을 통해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한다.

파나메라 4S와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의 기본 사양은 훨씬 더 다양하다. 파나메라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리어 액슬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후방카메라를 포함한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자동 클로징 메커니즘이 적용된 소프트 클로즈 도어 등이 포함된다. 최상위 모델인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는 4존 온도 조절기능과 다이내믹 헤드라이트 레벨링,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 및 엠비언트 라이트 등이 포함된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이 적용된 LED 메인 헤드라이트 등을 추가 기본사양으로 갖추고 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만을 위한 옵션으로는 스마트폰 스토리지와 인덕티브 안테나 인터페이스 (inductive antenna interface)가 포함된 대형 센터 콘솔(large centre console)이 있다. 이 센터 콘솔은 미 사용시 넣어둘 수 있는 에어크래프트 스타일 폴딩 테이블(aircraft-style folding tables)로 장착될 수 있다. (해당 옵션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확장된 휠베이스와 더불어 85kg 증가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은 기존의 파나메라 모델들과 같은 수준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연비를 자랑한다.

이그제큐티브 모델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런치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미포함 / 포함 0 - 100 km/h 최대 가속시간; 연비 기준: 유럽 NEDC, 복합연비):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262 km/h; 0-100 km/h in 5.6 s / 5.4 s; 7.8 l/100 km.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278 km/h; 0-100 km/h in 4.7 s; 2.5 l/100 km, 에너지 소비 15.9 kWh/100 km.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 289 km/h; 0-100 km/h in 4.5 s / 4.3 s; 8.2 l/100 km.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 306 km/h; 0-100 km/h in 3.9 s / 3.7 s; 9.4 l/100 km.

하이엔드 태블릿을 갖춘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새롭게 개발된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RSE)는 파나메라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쇼퍼 살롱(chauffeur saloons)으로 이용되는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의 경우,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뛰어난 연결성은 편리한 하이테크 업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긴 여행길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옵션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는 두 개의 10.1인치 터치스크린이 있다. 고해상도 무반사 스크린(1920 × 1200 픽셀)이 앞 좌석 백레스트에 부착되어 있다. 이는 분리하여 차량 외부에서도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하며 디스플레이는 강한 내구성과 고품질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파나메라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32 GB 플래시 메모리가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SD카드를 통해 용량을 추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영상통화와 채팅 가능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운드는 터치스크린 내 장착된 차량 사운드 시스템 또는 포르쉐 블루투스® 헤드폰(Porsche Bluetooth® headphones)에 의해 재생 가능하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범위의 디지털 소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미디어는 SD카드, 주크박스, CD/DVD 드라이브와 USB 스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뒷좌석에서는 라디오와 TV 튜너를 조종할 수 있으며, 네비게이션 루트 정보와 같은 차량 데이터 또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무궁무진하다.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뒷좌석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대부분의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으며, 앞 좌석의 PCM을 통해서도 조작 가능하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조작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스크린 하단의 중앙 홈 버튼을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서브메뉴에서 메인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화면 좌측의 수직 툴바를 통해 미디어, 사운드, 네비게이션, 앱, 차량 그리고 세팅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타일을 통해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스크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원형 계기들(엔진 속도, 차량 속도 및 나침반), 인터넷 및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타일을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파나메라를 위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포르쉐는 모든 2세대 파나메라 모델들과 더불어 신형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에 차별화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된 블랙 에어 인테이크와 C-블레이드(C-blades)가 장착된 차량 색상의 프론트 엔드 스포츠 디자인,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스커트와 블랙 리어 디퓨저가 장착된 익스테리어 컬러의 스포츠 디자인 리어 에이프런이 포함되어 있다. 블랙 색상의 재질은 새틴이나 고풍택 마감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전방의 번호판 홀더는 외관 색상과 맞춰져 있다.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스커트 또한 별도로 주문 가능하다.

강력해진 출력, 향상된 연비

신형 3리터 V6 터보 엔진을 장착한 파나메라와 파나메라 4

새롭게 디자인된 3리터 V6 엔진은 엔트리 레벨의 파나메라 엔진을 완성시켰다. 신형 6기통 엔진은 파나메라에서는 후륜으로, 파나메라 4에서는 4륜으로 구동된다. 모든 파나메라는 8단 더블 클러치(PDK)가 적용된다. 신형 파나메라의 다른 엔진들과 마찬가지로 V6 싱글 터보 엔진 또한 직분사 터보 엔진이다. 차량 출력은 5400 – 6400 rpm에서 330 마력 (243 kW)을 발휘하며, 이는 이전 모델에서 사용되었던 자연흡기엔진보다 20마력 증가한 수치다. 신형 터보 엔진은 1340 rpm에서 최대 토크 45.9 kg.m 에 이른다. (이전 모델: 40.8 kg.m). 신형 V6 엔진은 기존 V6 자연흡기엔진보다 더 높은 반응수준을 보여주며, 개선된 파워와 토크에도 불구하고, 연료 소비량은 100 km 당 1리터 감소시켰다.

신형 파나메라 모델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런치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미포함 / 포함 0 - 100 km/h 가속; 연비 기준: 유럽 NEDC, 복합):

파나메라: 264 km/h; 0-100 km/h in 5.7 s / 5.5 s; 7.5 l/100 km.

파나메라 4: 262 km/h; 0-100 km/h in 5.5 s / 5.3 s; 7.7 l/100 km.

19인치 휠과 LED 헤드라이트 등의 익스테리어 요소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와 파나메라 4는 프론트 윙의 고광택 에어 아웃렛 트림과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모델이 18인치 합금 휠을 기본으로 장착한 반면, V6 모델들은 19인치 휠을 장착한다. 또한 매트블랙 색상의 사이드 윈도우 스트립, LED 메인 헤드라이트, 4포인트 LED 주간등, 위치등과 지시등이 탑재된 LED 프론트 라이트 모듈, 오토매틱 커밍 홈 라이트(Automatic Coming Home lights)를 탑재한 드라이빙 라이트 어시스턴트, 4포인트 브레이크 라이트가 탑재된 3D LED 후면 라이트, 리어의 풀-램프 라이트 스트립(full-length light strip) 그리고 미러 하우스 내 엠비언트 라이트 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기능적인 익스테리어 요소의 기본 사양으로는 앞 유리 와이퍼를 위한 레인 센서, 전자식 테일게이트, 앞 뒤쪽에 장착된 주차 및 저속운전 시 장애물을 감지하는 경고 기능의 파크 어시스트 등이 있다.

연료 소비 및 배출

파나메라: 복합연비 7.6–7.5 l/100 km, 도심 9.8–9.7 l/100 km, 고속 6.3 l/100 km;
CO₂ 배출: 173–171 g/km

파나메라 4: 복합연비 7.8 – 7.7 l/100 km, 도심 9.9 – 9.8 l/100 km, 고속 6.5 – 6.4 l/100 km;
CO₂ 배출: 177 – 175 g/km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7.9 – 7.8 l/100 km, 도심 10.0 – 9.9 l/100 km,
고속 6.7 – 6.6 l/100 km; CO₂ 배출: 180 – 178 g/km

파나메라 4S: 복합연비 8.2 – 8.1 l/100 km, 도심 10.2 – 10.1 l/100 km,
고속 6.8 – 6.7 l/100 km; CO₂ 배출: 186 – 184 g/km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8.3 – 8.2 l/100 km, 도심 10.4 – 10.3 l/100 km,
고속 6.9 – 6.8 l/100 km; CO₂ 배출: 189 – 187 g/km

파나메라 4S 디젤: 복합연비 6.8 – 6.7 l/100 km, 도심 7.9 l/100 km,
고속 5.9 – 5.8 l/100 km; CO₂ 배출: 178 – 176 g/km

파나메라 터보: 복합연비 9.4 – 9.3 l/100 km, 도심 12.9 – 12.8 l/100 km,
고속 7.3 – 7.2 l/100 km; CO₂ 배출: 214 – 212 g/km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9.5 – 9.4 l/100 km,
도심 13.1 – 12.9 l/100 km, 고속 7.4 – 7.3 l/100 km; CO₂ 배출: 217 – 215 g/km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복합연비 2.5 l/100 km; 에너지 소비 15.9 kWh/100 km;
CO₂ 배출 56 g/km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2.5 l/100 km;
에너지 소비 15.9 kWh/100 km; CO₂ 배출 56 g/km

사용된 타이어 세트에 따른 범위